

CJ 대한통운 000120

지마켓-알리 파트너십, 반쿠팡 진영 강화 수혜

운송

Analyst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신세계,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합작법인 설립

신세계는 알리바바와 각각 50%씩 현물출자해 합작법인(JV)을 설립하고 공동 경영에 나선다고 발표함. 신세계는 이마트를 통해 지마켓 지분 80%를 모두 출자하고, 알리바바그룹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이하 알리) 지분과 현금 3,000억원을 출자한다는 방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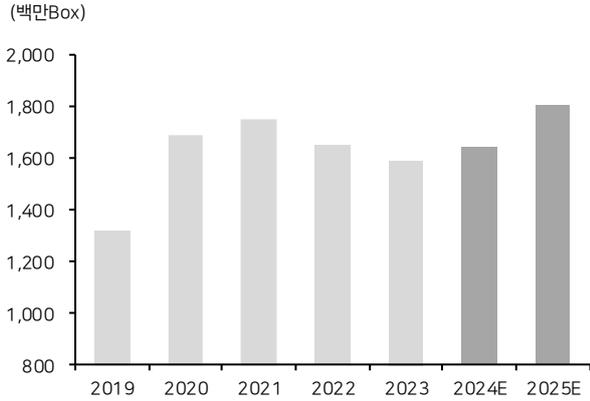
지마켓-알리 성장 수혜는 CJ대한통운

쿠팡과 네이버 2강 체제로 굳어지는 양상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함. 지마켓과 알리는 모두 CJ대한통운의 전략적 파트너임. 알리는 자본력을, 지마켓은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양사간 시너지가 기대됨.

지난 6월, CJ대한통운은 신세계 그룹과 MOU를 체결함. 지난 3분기부터 G마켓 배송을 담당한 바 있음. 2025년 1분기부터 SSG닷컴 물량 배송도 시작할 예정임. 기존 신세계그룹발 물동량 증가 효과는 분기별 약 1,300만박스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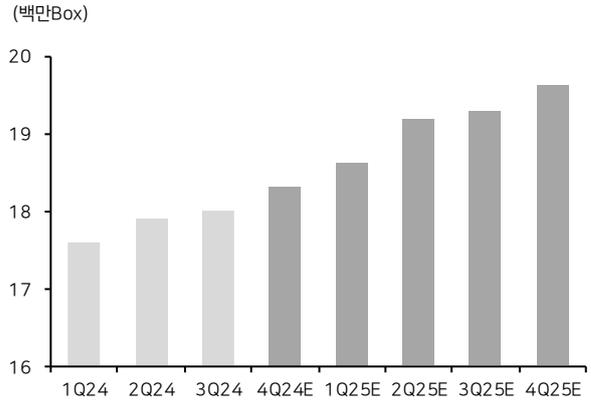
CJ대한통운은 알리 물동량 약 80%를 담당하고 있음. 발암물질 등 직구 관련 논란에도 물동량은 지속 증가함. 케이베뉴(한국제품 판매존)을 제외한 직구 물동량은 3분기 약 1,800만 박스를 기록함. 최근 케이베뉴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마켓과의 시너지는 케이베뉴에서 구현될 것으로 추정됨

그림1 CJ대한통운 전체 물동량



주: 메리츠증권 추정치
 자료: CJ대한통운,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CJ대한통운 직구 물동량



주: 메리츠증권 추정치
 자료: CJ대한통운,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2022년 9월, CJ대한통운-알리바바그룹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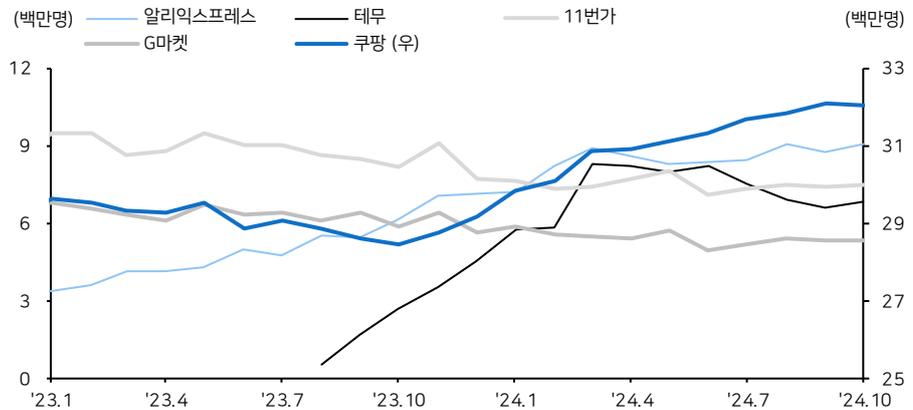
자료: 언론종합

그림4 2024년 6월, CJ-신세계 MOU



자료: 언론종합

그림5 주요 쇼핑앱 MAU 추이



자료: 와이즈앱,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